

병원에 가 보면 전국에서 환자들이 집중하여 온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은 더 고생할 것이다. 질병은 귀중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더 좋다고 생각하는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을 위하여 응급실과 입원실의 서비스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간단히 생각해서 의료 인력과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의료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자고 나면 호화로운 고층 빌딩이 몇 개씩 서는 것을 보는 우리의 실정에서 의료문제의 해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러나 의료시설의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 하면 인기 병원으로 집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기 있는 병원을 여러 곳에 만들어서 균형있게 의료시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빌딩을 짓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문제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필자는 십여 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한 병원에 간 일이 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마자 어떤 사람이 설문지가 든 봉투를 하나 주었다. 펴서 보니 거기에는 “의사가 병명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는가?”, “무슨 약을 얼마나 어떻게 먹으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는가?”, “다음에 오는 약속은 잘 받았는가?”, “의사는 친절했는가?” ...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 봉투는 병원장 앞으로 바로 가도록 주소가 미리 쓰여져 있었다.

우리의 환자들이 이런 설문지에 답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2만 달러 소득시대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좀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4:6의 신비한 비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구 인 환

세상을 잘 살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너와 나,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선비연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의식으로 공동사회 속에 이익사회의 경쟁 속에 자기를 성취시키는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에는 정로(正路)를 벗어난 비이성적이고 보기 흉한 일이 계속 벌어져 혼

탁한 현상을 빚어내 빈축을 사고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세상이 정신없이 변해 간다. 흐르는 세월의 궤도를 벗어나 급변하여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견 정반합(正反合)의 상승적 발전의 역사적 진전의 궤를 벗어난 초시간적인 변화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서구의 5백 년 걸린 산업사회를 30년만에 졸업하고 디지털의 정보사회로 들어서며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인심은 파도와 같이 출렁거리 그 지평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역이 몇 억 달러요 국민소득이 8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의 선 경제발전 후 민주화의 국가 발전 5개년 경제계획을 거듭하여 100억 달러 수출에 국민소득 1,000 달러를 이루는데 20년이 걸려 달성한, 1979년에 제 도약을 시도하여 유신체제로 곤욕을 겪은 나라가 불과 30년만에 전자와 조선 세계 1위요, 철광 단위공장으로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6위, 항공 전투기가 양산체제에 들어가 세계 상위권으로 진입하여 한 달에 325억 달러, 연간 4천만 달러 수출이요, 8천만 달러 무역 대국이 되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이룬 한국이 행복지수에서는 36위인데 불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남쪽만 4천만 명에서 23년만에 5천만 하고 8만 명이 된 한국, 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며 내놓고 잘 먹고 사는 한국, 선진 외국은 주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6시 이후에는 철시하다 시피 조용한데 한국은 저녁에 불야성(不夜城)을 이루어 더 활발하니 이견 한국의 역동력이면서도 이혼률과 출산율이 세계 정상에 이르고 있으니 이견 알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권력의 모든 것의 독점이나 그 추종, 이데올로기에 편중된 문화 예술정책이나 그 수혜자와 피해자, 51:49의 기업의 합병, 유산의 평등화에 의한 가부장의 전통 사회의 붕괴와 그 갈등이 확산된 극과 극의 간극에 의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양금이 실날같이 얇히고 있다.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나 부부 간의 갈등과 이혼이나, 근로자의 여러 형태의 기업주와의 분쟁과 데모, 그리고 엉뚱한 시책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의 반대와 촛불 집회,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할 대선정국의 폭로 비방의 갈등 모두 욕구의 성취와 그 치유의 간극에서 오는 충돌현상이다. 문단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나 그 독점, 집행부와의 갈등이나 문예지 남발에 의한 문학의 위상 훼손, 그리고 작가정신의 결여나 미숙이 부른 장식문인(裝飾文人) ... 등단하고 창작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정신이 미성숙한채 문단 기류에 상승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문인이 문단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 등 이루 그 예를 들기가 어려울 만치 사회적 갈등이나 그 표출이 극대화해 가고 있다.

여기에서 4:6의 비법을 새삼 절실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건 원래 독서교육의 덕목으로 고전과 현대, 그리고 다독과 정독에서 박이정(博而精)으로 상승하는 독서법의 정로이다. 말하자면 고전을 4, 현대문을 6으로 하여 고전의 바탕 위해 새로운 현대문을 읽어 정서와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는 별 희구한 일도 많기는 하지만 논술이 강화된다고 해서 초등학생이 논술 학원에 나가고 있는 기현상을 보게 된다. 제8차 교육과정에서 사고력과 논술이 강조되고 대학 입

시에서 논술(그것이 執筆이든 口述이든)이 강화된다고 해서 아직 정서와 사고력의 맹아(萌芽)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독서를 통한 정서와 사고력을 기르게 해야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 학사 주부들이 하루 종일 학생을 학원에 보내느라 차로 시내를 누비고 다니고, 아침에 나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뛰어 다니며 집에 늦게 들어와 하루 공부한 일을 정리도 못하고 피곤하여 쓰러져 자는 학생이 있는가, 또한 자기 생애를 버리고 학생을 뛰어나게 기른다고 주로 미국에 엄마하고 가 있어서 기러기 아빠가 되어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이진 다 갈등을 해소하고 상승하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여기에서 4:6의 신비한 비결이 절실해진다. 회사는 1프로 차이로 인수하는 경영권의 특수성이 있지만 권력을 싹쓰리하는 것은 커다란 병폐이다. 이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4:6의 정로를 걸어야 한다. 정신은 1보 앞서 가면서 행동은 반보 뒤지는 햄릿형이 돼서도 안 되고 정신은 한 보 뒤지면서 행동은 한두 보 앞서가는 동키호테 형이 돼서도 안 된다.

그리스 피타고라스파는 a:b의 비율을 5:8 또는 25:39의 비율로 나누는 것을 황금분할(the gold age)이라고 하여 액자나 종이를 끊을 때에 이런 비율로 끊으면 최대한의 미적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예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테복음 7:12)고 하고,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는 <중용(中庸)>에서 도의 실천은 신독(慎獨)에서 비롯하여 마음 속의 중(中)을 사물의 절도와 합치시켜 우주 만물을 화합하여 발전하는 중화(中和)를 실천하여 항상 중화에 의하여 중용의 도를 따라야 한다고 설파하여 중용의 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선인들의 삶의 슬기는 고전 4에 현대 6의 독서의 정도가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하여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 삶의 정도임을 말한 것이다.

4:6의 비결은 중용의 정로이면서 진취와 보수의 상승으로 새로운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삶의 덕목이다. 이 4:6은 경쟁과 진취, 그리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황금률이요, 포용과 견제에 의한 새로운 상승을 위한 미학이다. 하늘과 땅이 있고 밝음과 어둠, 삶과 죽음, 남자와 여자, 사랑과 미움, 승리와 패배, 경쟁과 포용, 진보와 보수 등 그 많은 이항대립(二項對立)이 황금률의 조화 속에 질서가 정연하지 않은가. 승자와 패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치열한 경쟁으로 결과된 현상을 박수로 수용하면서 두 힘을 합해 하나가 되어 그날을 위해 손잡고 전력투구하는 데 화합과 발전이 있다. 승자인 6이 욕심에 불타 7이 되면 패자는 3이 되어 갈등과 반목이 되고 하물며 2:8이 된다든가 1:9를 넘어 0:10이 된다면 이진 독점에 의한 갈등과 저항 더 나아가서는 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사랑 사랑 내 사랑 넘어 밀고 내가 끝면 우리 사랑 꽃피네’란 가요는 쟁취에 의한 독점이나 횡포에 치달지 않고 바로 견제와 견인, 그리고 포용의 미학을 잘 보여주는 서정이다. 이 같이 우리는, 승리로 욕구나 갈등의 고조에 의한 독점적 횡포를 지양하여 4:6의 황금의 비결로 성취의 경쟁과 화해에 의한 통합으로 공존공생의 자세로 내일의 지평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월간 문학』 2007년 12월호 게재).